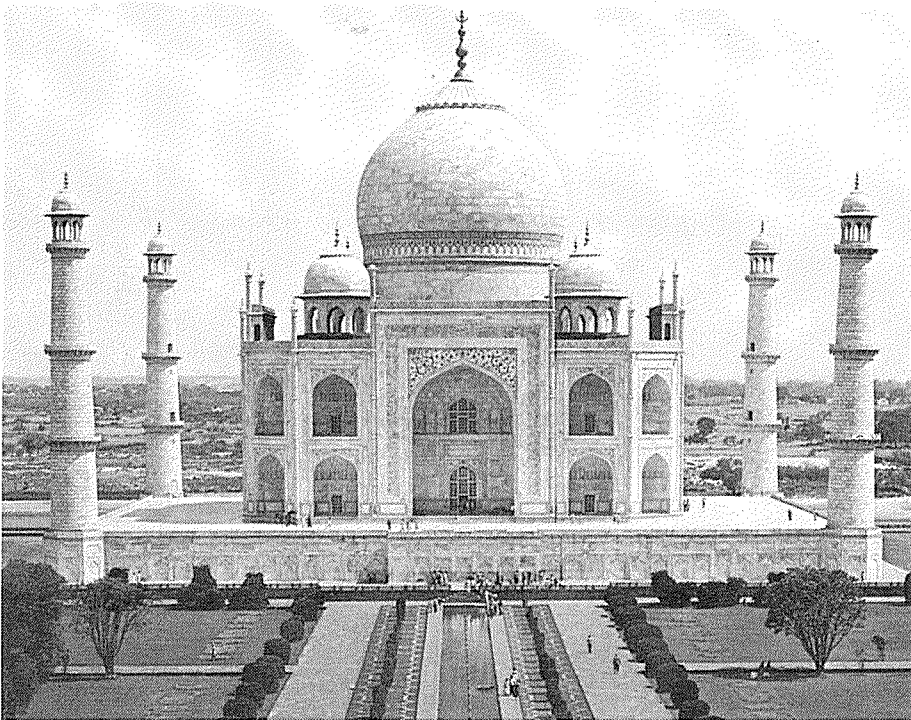


인도에서의 9일

—제3차 아시아건축학생 잼버리대회에 참여하고—



9월 25일 아침 김지덕 선생님 내외와 우리는 협회공식 대표단보다 하루먼저 인도를 향해 출발했다. 인도행 비행기를 기다리며 면세점을 둘러 보았는데 많은 상품들이 한국어로 「사은품」, 「추석할인판매」 등의 팻말을 진열대 위에 놓아 둔 것이 눈에 띄었다. 다섯 시간을 기다려서 Air India 를 탔더니 인도의 민속의상을 입은 스튜어디스들이 우리를 반겨 주었다. 예쁘다. 방콕에서는 터반을 쓴 사람들이 많이 탑승했다. 시크족인데, 부유층이 많으며 이들도 파키스탄처럼 정치적인 독립을 원한다고 한다.

방콕에서 네 시간만에 델리에 도착한 시간이 열한시 반—한국보다 네시간 반 빠르다—이었다. 입구수속을 마치고 짐이 나오기를 기다리면서 비행장 안을 둘러보니 많은 벽화가 있었다. 축제의 모습, 여인의 모습, 도를 닦는 선인의 모습 등 갖가지이다. 종교의 나라이기 때문에 원으로 상징되는 「만다라」를

강조하는 것인지는 몰라도 대부분이 원을 프레임으로 사용하였으며, 원만을 그려놓은 것도 눈에 띄었다.

짐을 찾은 후 환전소에서 달러를 루페로 바꾸어 택시를 탔다. 택시는 1950년대 피아트 모델로서 미터기가 밖에 달려 있었다. 그곳에는 거의 모든 도로를 신호등이 있는 교차로 대신 Round - About 으로 처리, 영국의 도로망과 매우 유사했다. 숙박지인 YMCA 호텔에 새벽 한시에 도착하여 인도에서의 첫 밤을 보냈다.

9월 26일 아침, 처음으로 햇빛 아래서 본 인도는 무척 넓다는 느낌을 받았으며 녹지가 있는 가운데 건물이 하나 둘씩 서 있는 것 같았다. 김수근 선생님이 설계한 주인도 한국대사관을 보기 위해 대사관이 모여 있는 곳으로 갔다. 개인적인 편견일지는 모르지만 각국 대사관들 가운데 우리 대사관이 가장 돋보였다. 무조건 엄격하지도 않고 기념비적이지도 않지만 그렇다고 소박하지도 않게 서 있는 모습을 보니 언젠가 학교에서 어느 건축가가 말 씀하신 안마당의 극대화란 개념이 머리에 떠올랐다.

오후에는 행사장소인 School of Planning & Architecture - SPA 에서 각국 대표 학생들과 간단한 인사를 한 후 개회식에 참석하였다. 첫날 참석한 학생들은 우리 한국을 포함해서 싱가포르, 홍콩, 말레이시아, 인도 및 파키스탄의 대표들 이었으며, 우리였고, 다음날 인도네시아와 방글라데시의 대표들이 도착하였다. 비록 초면에 풍습도 제각기 달랐지만 건축을 전공한다는 것 하나로도 마음 편히 이야기할 수 있었다.

9월 27일, 홍콩, 싱가포르 그리고 우리의 순으로 금번 잼버리대회 주제인 『나의 건축, 나의 환경』에 대한 오전시간 발표가 있었다. 홍콩은 주로 High Rise 빌딩과 고층 아파트들, 그리고 그들 사이에 생기는 공간의 효율적 이용에 대한 발표를 하였다. 그들은 우리가 보기에는 매우 상업화되고 비인간적인 그들의 도시에 대해 매우 만족해 하는 것 같았다.

싱가포르 대표들은 자기 학교—홍콩, 방글라데시도 마찬가지로 이지만 싱가포르에서는 건축대학이 하나밖에 없다—에서 사용되는 한가지 프로젝트를 보여주었는데, 짧은 역사적 배경 속에서도 전통을 찾아내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전통적인 형태의 단면과 평면, 입면을 만들어 풀라쥬화시킨 다음, 건물의 평면

남수현/서울대학교 건축공학과 3학년
이소진/연세대학교 건축공학과 4학년

과 입면에 바로 도입을 시키는 방법이었다. 현실성이 조금 결여된 듯 싶었으나 실험적이고 전위적인 것이 매우 마음에 끌렸다.

우리는 전통적인 한국의 주거양식과 현대 주거에 계승되는 특징들에 대하여 발표하였다.

오후에는 파키스탄, 말레이시아, 인도의 순서로 발표를 했다.

파키스탄에서는 시골의 마을에서 자신들이 자기집을 짓는 과정과 집들의 배치 및 공간 분할 등에 대해서 발표를 했는데, 칼흙으로 짓는 집에 이용되는 부조장식의 소박한 아름다움이 인간의 장식욕구는 어디서나 존재한다는 생각을 하게 해주었다.

말레이시아 대표들은 현대 건축에 인용된 전통 건축의 요소들에 대하여 발표를 했다. 그러나 확립적으로 인용되는 전통요소가 어디까지 모르게 건물과 융합되지 않아 보였고 설계자의 창의성도 보이지 않았다.

마지막으로 발표에 나선 인도는 인도 전통 건축의 특징과 현대 건축의 좋은 예와 나쁜 예를 보여주었다.

저녁에는 콘퍼런스 센터에서 개최되는 제4차 아시아 건축사대회 개최식에 참석하였다.

행사의 마지막날인 9월 28일, 주제는 『아시아 건축교육의 청사진』이었는데, 각 나라의 건축 교육 현황을 비교해서 보다 나은 제도를 제시해 보려고 마련한 시간이었다. 이때 들은 각 나라의 교육제도중에서도 가장 공감되는 것은 거의 모든 나라가 학교에 다니는 중간기간에 1~2년의 실습시간을 두고 있다는 것이었고, 또 학교를 졸업하면 바로 실시 설계를 한다는 것도 부러웠다.

잼버리대회의 공식적인 행사는 28일로 끝이 났지만 아쉬운 점이 있다면 인도현지의 불안한 정치사정 때문에 아그라로 가는 Tour가 모두 취소되었다는 것이고 또 시간을 지켜서 계획대로 된 것이 거의 없었다는 것이다. 또한 본 대회가 잼버리대회와는 별개로 운영이 되어 당초 참관 예정이었던 ACAE 회의에도 참여할 수 없었다.

다음날부터는 개별적으로 행동을 했다. 싱가포르 친구들과 같이 Janph라고 하는 쇼핑 거리에 가서 쇼핑을 했는데 가격을 실랑이하는 것이 매우 힘들었다. 그 다음날 파키스탄 대표들이 따로 준비한 버스를 타고 새벽 3시에 아그라로 출발했다. 버스 밖으로 펼쳐지는 시골의 풍경은 마치 아프리카를 연상시켰

다. 넓은 평야의 수풀 속에 가끔 하나씩 서있는 집들, 시골의 중간 중간에도 조그마한 모스(이들의 성당같은 것)가 자주 눈에 띄어 종교의 나라임을 엿볼 수 있었다. 4시간을 달려서 타지마할에 도착했다. 세계 7대 불가사의의 하나라는 타지마할은 모든 사람들을 감동 시키기에 충분했다.

이 타지마할은 배치에 있어서도 기존의 무덤에 비해 매우 혁신적이라고 한다. 기존의

16세기경에 지어진 인공 도시라고 하는데 그 질서정연함과 공간적 느낌이 너무 멋있었다. 몇 년전에 기본적 있는 이탈리아의 폼페이보다 오히려 보존이 더 잘된 것 같다. 저녁때의 실루엣이 매우 인상깊었다.

그 다음날은 델리에 폭동이 예상된다고 하여 숙소에서 그냥 머물렀다. 나라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안정이 중요하다는 것을 잠시나마 느끼게 되었다.



무덤들은 직사각형의 대지를 4등분하여 그 중앙에 무덤을 위치시키고 수로를 네방향으로 트는 것이 보통인데 이 타지마할은 무덤의 위치를 강쪽으로 불임으로써, 강에 비치는 타지마할의 모습에서 죽음과 삶의 무상함을 느끼도록 하였고, 입구에서부터는 반대로 진입로가 더 길어져서 그 기념비적 느낌이 더욱 강하도록 계획하였다고 하며, 정원도 원래에는 나무가 뺄뺄히 차있었다고 한다. 따라서 타지마할의 본 건물에 가까이 갈수록 나무에 가려진 모습이 조금씩 조금씩 그 위용을 드러내면서 그 신비함을 극대화시키려는 의도였는데, 영국인들이 나무를 다 잘라버려서 지금은 그러한 감흥을 받을 수가 없다고 한다.

그 다음에 들린 곳이 Fort of Agra인데 상당히 깨끗하다는 느낌을 받았다. 창문으로 멀리 보이는 타지마할을 의식하도록 너무 의도적으로 설계한 것이 아닌가 해서 물어보았더니 이 건물이 먼저 지어진 것이라 한다. 마지막으로 간 곳은 Fartapha - Sikri였다. 약

다음날은 델리의 Red Fort, India Gate, Jantur Mantur를 보았는데 특히 잔타 만타는 매우 인상 깊었다. 이것의 원래 용도는 천체관찰이라고 하는데 다른 지역에 있는 것은 모사물이라고 한다. 그러나 용도 뿐만아니라 그 형태가 주는 공간의 깊이와 느낌이 매우 좋았다.

마지막 날은 숙소 근처를 조금 돌아본 후 떠날 채비를 했다. 네시 반까지 기다리다가 공항으로 갔으나 배웅 나온 친구들은 아무도 없었다. 회장님을 비롯한 대표단 일행들이와 계셨다. 연락이 안되어 걱정하셨다고 한다.

오는 비행기는 시간이 별로 안걸리는 것 같았다.

끝으로, 이런 좋은 기회를 마련해 주신 대한건축사협회에 감사를 드리며 특히 저희를 돌봐주신 협회 회장님을 비롯한 여러 선생님들께 큰 감사를 드립니다.